

우리의 보혜사/위로자이신 예수님

질문: 성경과 예언의 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위로자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성령도 보혜사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세주는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나는 그분이 보혜사이심을 증명하였다.” {8MR 49.3}

“...우리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그분을 흠모한다.” {19MR 297.3}

“성령,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혜사는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것이다.” {AG 246.8}

답: 성경과 예언의 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혜사/위로자는 오직 한 분이심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다른 또 하나의 존재가 아니며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증거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후 1:3-5)

“이것은 보혜사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편재성을 두고 한 말이다.” {원고 14 권 179.2}

“이 보혜사는 성령-그분의 영혼의 생명, 그분의 교회의 효력, 세상의 빛과 생명이다.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는 영향력과 죄를 없애주시는 능력을 보내신다. {TDG 257.2}

“주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은총의 표현으로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 {9T 230.3}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DA 805.4}

다른 곳에서 화잇 여사는 요한복음 14:17 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 적용시키고 있다.

“그 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리나 이미 죽은 현인들의 어록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대하였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요 14 : 17)는 바로 그분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 (소망 494.3)

“Cumbered with humanity, Christ could not be in every place personally; therefore it was altogether for their advantage that He should leave them, go to His father, and send the Holy Spirit to be His successor on earth. The Holy Spirit is Himself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He would represent Himself as present in all places by His Holy Spirit, as the Omnipresent.” {14MR 23.3}

“인성으로 제약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각 곳에 계시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에게 가서서 성령을 그분의 후임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모든 유익을 위함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인격을 제거한 그분 자신이므로 독립된 것이다.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자신을 편재하시는 자로 나타내실 것이었다.” 원고 14 23.3

영감의 글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의 영혼, 그분의 임재. 그분 자신의 생명, 곧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

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57, 63).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 곧 당신의 품성의 신성(神性)을 가르치신 것이었다. (1 가려뽑은 249)

그러므로 화잇 여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였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오직 한분의 보혜사가 계시다고 하였다.

화잇 선지자의 글에서 오직 한 분의 보혜사가 계신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4: 16 절에서 “보혜사/위로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 1 서 2:1 에서 “대언자”로 번역되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6)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파라클레이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이것은 우리의 보혜사/위로자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심을 명확히 가르쳐준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지자께서 쓰신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대언자, 한 중보자가 계시다. {LHU 319.4}

이 대언자와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보혜사/위로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There is no comforter like Christ, so tender and so true.”

그리스도와 같이 다정하고 진실한 보혜사/위로자는 없다.” {RH, October 26, 1897 par. 15}